KT, 로봇·테이블오더 도입 확대 속도낸다

대리점 모집 창업설명회 개최…POS 등 관계자 300여명 참석 주목

"무궁무진한 시장"…서빙로봇·하이오더 등 외식업계 디지털 전환 관심

KT가 28일 KT 광주타워 대강당에서 로봇·테이블오더 창업설명회를 개최(왼쪽)하고 상담 부스 등도 운영했다. 〈KT전남전북광역본부 제공〉

KT가 소상공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로봇·테이블오더 도입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낸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28일 "KT 광주타워 대강당에서 로봇·테이블오더를 도입해 KT와 함께 할 대리점을 모집하는 창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유사 업종으로 사업에 관심도가 높은 VAN(value added network·부가가치통신망)/POS(Point Of Sales·판매시점 관리 시스템) 대리점 대표, 광주전남프렌차이즈협동조합, 창업이나 프리랜서 영업 희망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KT의 로봇과 테이블오더 시장 전망과 사업성에 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 설명회장에서는 KT 서빙로봇과 '하이오더' 체험을 해볼 수 있었으며 설치상담, 창업상담 등 상담부스도 운영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서빙로봇이 물과 주스 등을 전달하며 높은 관심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하이오더는 KT의 테이블오더 서비스로 지난해 런칭 후 호남지역에서만 약 7천대의 하이오더를 점주들이 도입해 사용 중이며 2024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빙로봇도 호남지역에서 약 600대가 소상공인의 바쁜 일손을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 하이오더와 KT 로봇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인 유니이엔티의 노기상 대표는 "KT의 프리미엄급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와 로봇 사업의 성공을 확신했다"며 "시장은 무궁무진하니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철 KT 전남전북고객본부장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영업 열정이 넘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KT와 함께 외식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전남전북고객본부는 행사 이후에도 로봇·하이오더 창업 상담이 가능한 헬프데스크(062-363-3133)를 운영한다. /김현지 기자

'역대 최고 경쟁률'…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OT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28일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14기 45명을 대상으로 입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최종 45명 선발에 189명의 창업자가 몰려 평균 4.2: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오리엔테이션에는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본부장, 송창금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장 등 60명이 참석했다. 동문 기업들이 후배 창업자들의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의 밥차'도 제공했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인프라, 창업 교육 및 코칭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일괄 지원 받게 된다.

올해는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 및 전장 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분야 등 광주지역 주력산업과 AI 분야, 미래 모빌리티 등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 기업의 선발 비중이 91.1%로 대폭 확대됐다. /정은솔 기자

광주은행, 공부방 개선·학습돌봄 돕는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노후화 개선 등 민생금융지원 일환 7억 전달

광주은행은 28일 "최근 광주은행 본점에서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부방 환경 개선 및 학습돌봄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후원은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대학생 고용 연계를 통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인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고용 연계를 위해 선발된 30여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은 장학금 수혜를 받고 방과후 학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했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총 1억원의 금액을 들여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했으며, 올해는 범위를 확대해 총 7억원, 약 40개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4천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오며 광주 ·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가며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KDM+ 4기 류현서씨, 한국타이어 '산학 협력프로젝트' 대상

광주디자인진흥원 성과…사내 커뮤니케이션용 캐릭터디자인

광주디자인진흥원의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KDM+) 4기 회원 류현서(23·전남대 디자인학과 4년·사진)씨가 한국타이어 '사내 커뮤니케이션용 캐릭터 산학 협력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사내 커뮤니케이션용 캐릭터 산학 협력 프로젝트'의 시상식을 갖고 류현서씨와 부산의 변종현(26·울산대 산업디자인학전공 졸업)씨가 공동 작업한 캐릭터 디자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협력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함께 진행했다.

전국 디자인 전공 학생 19명을 12개 조(개인 8개 조, 팀 4개 조)로 구성해 한국타이어 고유의 기업문화 '프로액티브 컬처' 기반 '프로액티브하게 일하는 법'을 상징하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전용 캐릭터 디자인과 네이밍을 과제로 제시했다.

대상을 수상한 류현서 씨 팀은 한국타이어 심볼 형상의 헤어스타일과 타이어 형상의 전용 고글을 착용한 열정 넘치는 캐릭터를 디자인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지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하나!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둘!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셋!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